

로잔대회 최종 | 역사적 케이프타운 조약 채택

로잔대회, 세계 복음화 사명 재확인하며 폐막



24일 저녁(현지 시각) 제3차 로잔대회가 그 막을 내렸다. 폐막식에서 앙리 오롬비 남아프리카공화국 성공회 대주교, 보안을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지도자, 그리고 더그 버드셀 로잔위원회 총재가 대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Christian Post/Hudson Tsuei

지난 17일부터 8일간 '세상과 자기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열리며 전 세계 198개국 4천여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한 데 모았던 제3차 로잔대회가 24일 저녁(현지 시각) 교회에 주어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그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가장 먼저는 각국에서 온 교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자리이자,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성경과 로잔정신 안에서 세계 교회가 하나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교제와 연합의 자리가

됐다 데 의미가 있었다. 이 가운데 또한 오늘날 세계 복음화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책임을 일깨우는 기회가 된 이번 대회는, 이 모든 도전들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전도와 세상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성취라는 로잔정신, 즉 '모든 교회가, 모든 세계에, 모든 복음을(Whole Church, Whole World, Whole Gospel)' 전한다는 사명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가운데 그 끝을 알렸다. 폐회사를 전한 로잔위원회 국제 디렉터 린제이 브라운 박사는 "사회의 모든 영역

에 복음을 들고 침투해야 할" 교인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리적으로는 모든 나라, 즉 땅 끝까지,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전 범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의 다양한 교파와 교단, 교회가 '경쟁'의 정신이 아닌 '협력'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기반으로한 연합을 이뤄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 됨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력은 이번

대회 주요 주제 중 하나였기도 하다. 끝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교인들의 지속적인 헌신을 촉구한 브라운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는 단기간의 결과를 갖고 하나님에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대해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인내와 믿음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대해 더그 버드셀 로잔위원회 총재는 "세계 속 복음주의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자리를 확인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는 참석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로잔정신은 대회가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운동이라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차 로잔대회는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함께하는 것이라 통합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져왔고, 이후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대회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헌신을 '이 세대 안에' 이를 다짐하며, 개인의 구원에서 나아가 사회 모든 면에서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온전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순현정 기자)

새에덴교회 성장비결은 '생명나무 목회'

미국 이민 목회자들을 위한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2010'이 더블트리호텔에서 10월 25일~27일까지 개최됐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해, 그의 생명나무 목회 노하우를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2010' 성황리 개최

는 여러가지 분장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에덴교회는 생명나무 목회 원리를 적용해 한국 교계를 섬기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강석 목사는 "생명나무 목회란 목회 핵심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영신학'의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컨퍼런스 기간 동안 생명나무 신앙이 각 교회 성도들과 중직들에게 전해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25일(월) 오후3시에 열린 개회예배 시간에는 조명환 목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2010 주강사 소강석 목사가 생명나무 목회 노하우에 대해 목회자들에게 전했다. ©지재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추계부흥성회

주제: 주여!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 강사: 정봉기 목사 약력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
-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 율리안신학대학교 목회학박사
- 서울강동노회장 역임(통합)
- 총회 부흥전도단 단장 역임
- 범양신교회 대표회장(현)
-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성회본부장(현)
- 한국장로교총연합 부흥사회 대표회장
- 부산장신대학교 이사
- 프라미스 코리아 한국대표(현)
- 남서울세운교회 담임목사

▶ 부흥성회 일정

- *11월 12일(금) 7:30분 (본문: 출30:34-36)
- 제 목: 하나님 대접받는 삶
- 13일(토) 7:30분 (본문: 사60:1-5)
- 제 목: 축복을 만드는 믿음
- 14일(주일) 11:00분 (본문: 시37:4)
- 제 목: 소원을 이루는 믿음

▶ 오시는 길

장소: 해외한인장로회 (담임목사: 강신권) 세계성경장로교회
주소: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연락처: (310) 793-2297 / 담당목사 김용호 Cell (714) 393-4452

이민교회 화해사역 “사과하고 용서해야”

▶ 2회 코딤 컨퍼런스 고태형 목사, 림형천 목사 등 주제 강의



제2회 코딤 서부지역 컨퍼런스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지재일 기자

이민교회 내 분쟁과 분열의 문제는 역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화해사역에 해답이 있다.

지난 18일~20일까지 개최된 제 2차 코딤(KODIM:Korean Diaspora Ministry) 서부지역 컨

퍼런스에서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화해와 용서의 리더십’에 대해 주제 강의를 했다.

“분쟁이 시작되면 서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원로목사의 말과 “1세 한인교회의 분쟁해결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2세 목회자의 말을 빌려 강의를 시작한 고태형 목사는, 분쟁의 문제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다.

해결방법으로 ‘화해와 용서의 리더십’을 제시한 고태형 목사는

“목사, 장로, 평신도가 서로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형 목사는 “화해와 용서의 리더십은 주님께서 온 몸으로 보여주셨던 삶과 주께 받은 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며 “목회자가 화해와 용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목사는 교회 내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시기와 질투’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기심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죄악상의 한 단면(롬1:28-29, 약 3:16)”이라며 “사람의 죄악(시기심)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대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지체의식’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태형 목사는 “몸의 각 지체가 다르다고 경중을 따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달란트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며 모두 다 주의 지체로 귀하다는 것을

교회)가 ‘이민교회 사역자 모델’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설교자 역량 높이기(권석균 목사/지구촌교회)’, ‘이민교회와 선교에 대한 성서적 접근(김신일 목사/달라스연합장로교회)’, ‘인터넷을 통한 이민 중·소교회의 선교 전략(김동욱 목사/멘버한인교회)’, ‘이민교회 셋팅에서의 전도전략(최성은 목사)’ 등 분야별 강의와 참가자들을 위한 멘토링이 진행됐다.

코딤은 지난 2003년 미주와 전 세계 이민교회 사역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이어 2006년 8월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후 세미나와 멘토링을 통해 이민신학 정립을 도왔으며, 건강간 이민목회를 하는 멘토 목사들의 ‘목회 멘토링’을 수차례 실시했다.

코딤은 2008년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 빌리그래함 센터에서 이민목회자들을 위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서부지역 컨퍼런스를 소규모로 개최했다.

홈페이지: www.kodim.us
문의: 805-208-8242

〈박상미 기자〉



엄마와 함께 하는 아기학교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담임 임승호 목사)는 지난 10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엄마와 함께하는 아기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제1기는 예배와 인형 만들기, 농장체험, 추사감사파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기학교를 담당하는 임주리 사모는 “아기학교는 아이들에

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엄마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인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며 “아기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아기들을 많이 길러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High School 졸업생에게
* 짧은 현장실습을 통해 알찬 직업을 추천합니다.

- 1. 기초영어중, 고급 8개월 코스, 컴퓨터 학비 전액 보조
-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 3. 아카운팅 대학 졸업장, 자격증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대학 졸업장, 자격증
- 4. 약사 보조직 / 의사 보조직 / 컴퓨터 그래픽 & 데스크탑 퍼블리싱
- 5. 유학생 1-20 발행 (소셜번호, 워킹퍼미트 도와 드림)
- 6. 졸업후 직업 추천 헤드링 (유타계 ORT대학)

※ 영주권자 이상, 저소득층 유자격자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버스포 전액 보조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윌셔+La Jolla, 버스 20번)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시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인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4.99/월 더 이상 국제전화 플랜에 별도로 가입하거나 전화카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지금 가입하시면, 한국 가족들이 국내 통화하듯 부담 없이 미국으로 전화하는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10월 16일 ~ 10월 31일 가입자에 한함

- 1 미국 전화번호는 물론 한국 전화번호 무료 제공!
초저가 요금으로
- 2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3 기존 전화기, 전화번호 그대로!
초저가 요금으로
- 4 아이토크글로벌 이용 가능!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국제전화
- 5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6 아이토크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로컬/장거리/국제전화를 사들것 이용하고 싶으세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캐나다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개통비(\$29.99) 면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가입문의
iTalkBB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www.Korea.iTalkBB.com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얻으세요!

환영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원보통을 위해 종이 향수기 대신 천연향과 천연한 온라인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교회 '인생뒤집기'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 제 6회 '인생뒤집기'가 10월 18(월)일부터 23(토)일까지 개최됐다.

남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수장이 된 것처럼, 예수그리스도로 인한 인생뒤집기를 강력히 도전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모티브로 '도망자에서 도전자로'라

특히 22일(금) 저녁에는 실

“도망자에서 도전자로” 고승희 목사 메시지 전해

는 주제가래 진행된 집회는 불신자들과 성도 모두를 위한 자리로, 매일 밤 공연과 간증 메시지가 함께 진행됐다. 고승희 목사는 예수

패 가운데 '인생뒤집기'를 전했다. 고승희 목사는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리가 필요하다”며 “실패 가운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가족과 이웃들이 실패하고 실수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없이 복된 삶”이라고 덧붙였다.

고 목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내미시는 하

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며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은혜의 크기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회 '인생뒤집기'는 전도초청 집회로 시작해 올해로 6번째를 맞이했다.

바쁜 이민생활로 집회에 참석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고려해 기간을 일주일로 늘리고, 일주일간 모두 참석하지 못해도 집회의 목적과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매일 소주제들을 달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공연과 간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승희 목사는 “자살을 결심했

던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변화를 경험한 일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돌이키는 등 집회를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며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순서를 계획하고 준비한 성도들의 협력과 기도가 큰 힘”이라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아름다운교회 '인생뒤집기' 집회가 18일-23일까지 개최됐다. ©지재일 기자



(왼쪽에서 세번째)오렌지카운티 교협 회장 박용덕 목사, (왼쪽에서 네번째)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신임회장 손태정 목사.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손태정 목사 회장 선출

제30대 오렌지카운티 목사회가 지난 18일 스탠튼 소재, 예수비전교회(박대근 목사)에서 총회

를 열고 회장에 손태정 목사(한생명교회 협동목사)를, 총무 김홍권 목사(페트라 교회)를 각각 선출했

다. 이날 1부 예배는 증경회장 박대근 목사가 사회를 하고, 정필흠 목사의 기도로 시작, OC 교회협의 회 박용덕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제2부 총회는 문현봉 목사가 사회를 하고, 강남중 목사가 기도한 후 회칙 개정 및 회부 처리를 은혜롭게 처리한 후 손태정 목사를 만장일치로 당선시켰다.

총무에는 김홍권 목사, 서기에는 임금민 담임목사가 선임되었다.

손태정 목사는 “앞으로 오렌지카운티지역 목회자들과 연합으로 지역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정기적인 중보기도 모임을 가질 것”과 “목회자 대화방, 치유상담, 오이코스 전도법 세미나, 가정사역 등 8주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목회 지원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일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4차 정기총회

남가주 지역 4500여명 목사들의 대표기관인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는 제44차 정기총회를 내달 1일 오전10시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등 차기 임원단이 선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번이 없는 한 현 수석부회장인 박효우 목사가 회장에 단독 공천을 받아 경선 없이 선출될 예정이

다. 차기 회장은 현직 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목사회 정관에 따르면, 목사안수 후 10년 이상 된 사람으로 남가주에서 목회한 지 5년 이상 된

서, 30인 이상 회원추천인 명단, 금월 주보, 발전기금 등을 목사회 사무실(2911 W. Beverly Bl. LA, CA 90057)로 제출해야 한다. 목사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11월 1일 풍성한교회서 개최 신임회장에 박효우 목사 선출 예상

담임목사만이 이들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들은 25일 정오까지 이력서, 교단 소속 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현 교회 시무확인

아이티 지진 대참사 구제를 위한 교계 공동모금캠페인, 남가주목회자 ILP캠페인, 부활절 연합찬양제, 목회자 탁구대회 등을 실시했다. 문의:(213)381-9490

〈지재일 기자〉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헬스클럽 멤버십 • 해외여행
- 응급시 혜택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금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충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서+월턴)

UMC '파사데나 지방 참회집회' 열려

인연합감리교회로 이번 참회집회를 주도했다. 집회의 간증자로는 이성현 목사, Ann Swenson 감독, Adrial DePano 감리사, Rev. Dr. John McFarland과 Eaar Oden 등이 나섰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참여교회 성도들의 80시간 연속기도와 성경읽기로 준비되어 더욱 뜻 깊다. 20일(수) 오후 4시부터 시작돼 23일(토) 밤 12시에 끝난 80시간의 준비모임은, 자신이 약속

한 시간에 나와 기도실과 예배당에서 각각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성현 목사는 “평양 대부분이나 아주사 대부분, 영국 웨이즈의 부흥은 모두 회개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가 제일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이듯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이며 그것이 곧 부흥의 시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문인으로 가는 길, 미주개혁 대학

문예창작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시인, 소설, 수필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절차를 밟아 문학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미주개혁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문학 수업을 받으십시오. 학위와 등단을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 햇볕 문학상 수상 작가인 박요한 목사가 강의 및 개인 지도를 합니다.

시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윗은 시인이었다. 다윗은 천수를 누리고 은혜가운데 전성시대를 열었다. 당신의 마지막 길은 "문학으로의 등단이다"

미주개혁교회 열린예배에서 영광의 시대를 다시 찾자
주일 아침 10시 30분

미주개혁 신학대학교 The Reformed University
우편주소 :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학교주소 :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
Toll Free: 1-800-281-2123 /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총장 신학박사 : 박요한 (Rev. John Park Ph.D)

[새벽강단 17] 남가주동신교회 새벽예배

곤경을 돌이키는 하나님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의 토요일 새벽예배는 주일예배와 같이 정성 가득하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더하여 잘 준비된 예배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 성도들이 사모하는 새벽예배가 되었다. 손병렬 목사는 욥기를 본문으로 '곤경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전하며 "어떤 곤경이 와도 모든 일에 입술이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처럼 순전한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본문: 욥기 42장 10~17절〉
 욥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욥처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 하나만 우리가 겪게 되어도 그 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잃었습니다.

욕의 고난은 욥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욥을 테스트 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인 아래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모르는 자였고 오

직 하나님 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욥기 후반부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십시오. 욥에게서 받는 충격입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내면에 깊숙이 있었던... 자신은 '행복하고 문제가 없으며 잘못이 없다'라며 가졌을지 모를 우월감을 다 꺼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교만했던 마음이죠. 남들과 비교평가해서 자기 스스로 위로 받았던 마음까지도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꺼내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불행은 보게 됩니다.

남가주동신교회 토요일 새벽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하며 삼니까? 판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 받습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을 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욕은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제야 회개하게 됐습니다. 막상 다 잃어보니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지만 욥은 벗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께 생명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

람이라면, 누가 뭐라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혹여 그 사람이 안 받아도 그러나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모든 일에 범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지 원망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욕기 2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지라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성경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받았을지라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잊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나 힘든 문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절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지라'.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순전히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박상미 기자)



손병렬 목사

레이저비전월드 교회음향·영상1일클리닉 개최



레이저비전월드에서 일렉트릭 드럼 세션을 선보인 전문 드러머 장세화 씨(남가주사랑교회).

교회음향 전문회사, 레이저비전월드(www.laservisionworld.com)는 지난 10월 16일 교회음향 및 영상 1일 클리닉을 개최했다. 예배와 교회 행사에 필요한 음

향, 영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으로 음향과 영상을 최고의 화질과 음질로 향상시키는 방법 등의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클리닉에서 일렉트릭 드럼 세션을 선보인 전문 드러머 장세화 씨는 "어쿠스틱 드럼의 경우, 연주 볼륨이 찬양팀 전체의 균형을 깨는 경우가 많아 향후 10년내 일렉트릭 드럼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회에서 악기와 음향, 영상 장비가 효과적으로 사용돼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드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에서 드럼의 역할에 대해 장세화 씨는 "일부 교회에서 드럼 사용에 대해 경계하기도 하지만, 찬양을 드리는데 악기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졌으므로 역사상 가장 오랜 악기인 드럼을 통해 온 몸과 맘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LA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남가주에스터기도운동, 다윗의장막, 미주 주님의교회, AMC 주님의교회, Change Point Ministry 등 7개 교회 및 단체가 주관한 'Breakthrough Anoint-

ing, LA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성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도성회는 100년 전 LA에서 일어난 아주사 부흥과 같은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새롭게 LA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개최됐으며, 성회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미국 정부가 되도록, 동성애, 낙태, 마약 등 범죄가 사라

LA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성회 열려

를 가졌다. 기도성회 주강사로는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와 Brian Simmons 목사(Apostolic Resource Center대표)가 초청됐다. Brian Simmons 목사는 1971년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중앙 아메리카의 정글에 10여년간 교회를 개척했으며, Kuna족 언어로 신약성서를 공동번역하기도 했다.

을 가졌다. 기도성회 주강사로는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와 Brian Simmons 목사(Apostolic Resource Center대표)가 초청됐다. Brian Simmons 목사는 1971년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중앙 아메리카의 정글에 10여년간 교회를 개척했으며, Kuna족 언어로 신약성서를 공동번역하기도 했다. (지재일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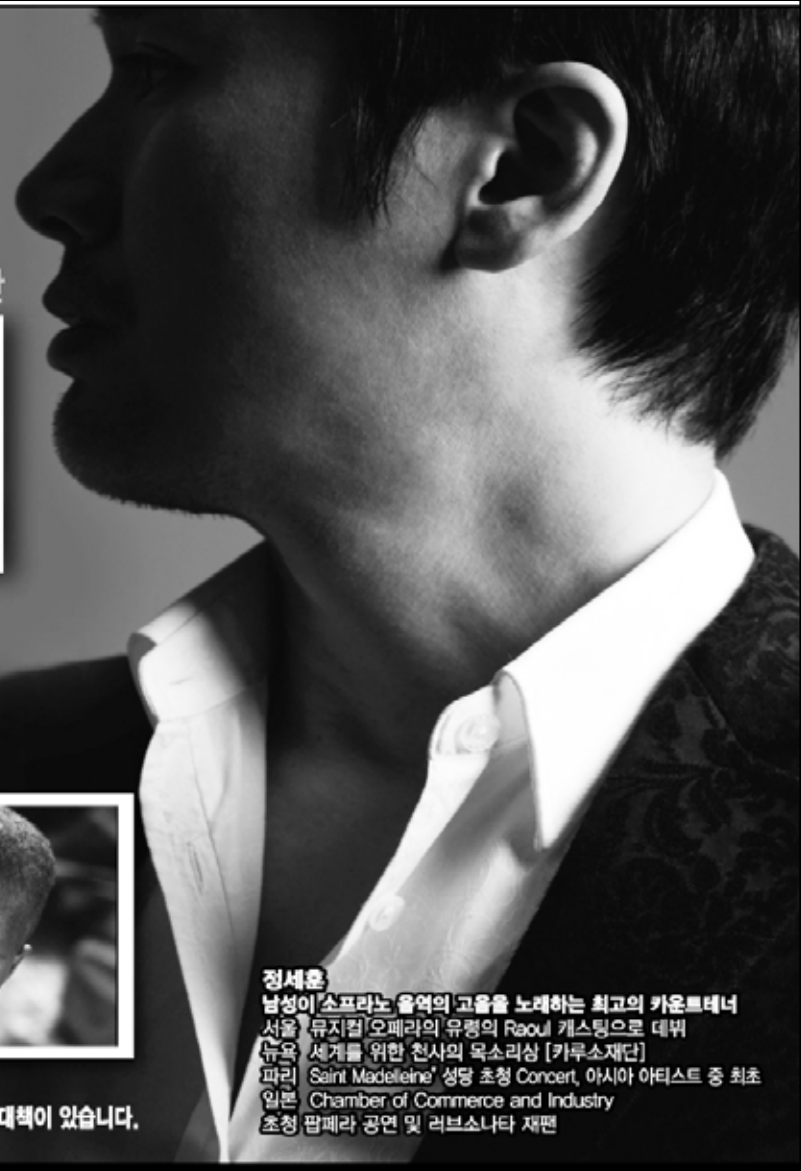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정세훈의 선교 음악회

곶주린 아프리카 부룬디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 : 워싱턴
11월3일(수) : 리치몬드 주예수교회(배현찬 목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804)560-7500
11월5일(금) : 메난드일 메시아장로교회(한세영 목사)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703) 941-4447
11월6일(토) : 볼티모어 벨렐교회(진용태 목사)
 3165 St Johns Ln, Ellicott City, MD 21042 (410)461-1235

아틀란타 11월7일(주일) : 아틀란타 예정
LA 11월10일(수) :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예정
 11월12일(금) : 나성한안감리교회(남강식 목사)
 433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20
 (213)385-6191

시간 : 오후 8시 - 9시30분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선교한글시간과 어린이결연이 있습니다)
 선교후원금 : Payable to KAFH
 문의전화 : 847-296-4555, 703-473-4696 선교국장 정승호 목사
 공동주최 :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
 특별후원 : 영신건강자, 워싱턴 중앙일보
 후원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크리스찬뉴스워크, 미주크리스찬신문, 크리스찬에틸드,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찬파워, 기독교일보, 미주복음방송.



곶주린 지구촌 1/3 세상을 위해
Food for the Hungry/국제기아대책이 있습니다.

정세훈
 남성이 소프라노 음역의 고음을 노래하는 최고의 카운트테너
 서울 뮤지컬(오페라의 유령의 Raoul) 캐스팅으로 데뷔
 뉴욕 세계를 위한 천사의 목소리성 [카루세단]
 파리 Saint Madeleine 성당 초청 Concert, 아시아 아티스트 중 최초
 일본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초청 팝페라 공연 및 레브소스타 재팬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은 세계의 열적 유해적 곶주린의 종식을 위해 지구촌 75개국에 복음과 밥을 전하는 기아봉사단을 파송한 기독교대표 NGO 선교기구입니다. 국제기아대책은 월임비 0.3%를 제외한 전부를 곶주린 지구촌의 참정적 공동체개발을 위한 기아극복과 긴급구호에 실질적으로 사용합니다.(Cherry Navigator 제공)

‘100세 大원로’ 방지일 목사 생일기념 축하파티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 목사) 100세 생일기념 축하파티가 지난 18일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에서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참석자들과 함께 열렸다. 파티에 참석한 배사라 선교사(UBF 설립자)는 "1967년 한국에서 UBF 수련회 강사로 방지일 목사님을 초청해 처음 만나게 됐다"며, "오늘날까지 복음전파에 힘쓰고 계셔서 항상 존경스럽다"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방지일 목사는 "본인이 27세에 목회자로 헌신한 후 20년 이상 중국에서 선교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12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복음전파에 힘쓸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 100수를 맞은 영등포교회 원로 방지일 목사(왼쪽에서 네번째) ©지재일 기자

어둠던 역사 20세기의 문턱
 님의 맞 머슴으로 태어난 그대여!
 굵이굵이 뚜벅뚜벅 세월 100년
 이른 아침 산동성 래양 서울
 영등포에
 십자가 종탑 높이 세워
 복음의 첫 밭 일군 농부여!
 하아얀 물보라 이는 풍차로

수백 저서 퍼낸 불멸의 저술가
 여! 석양 하늘 고은 빛 바라보며
 5대양 6대주 태평양 날아 대서
 양 넘어 인도양 돌아
 후진들 격려하며 사람사는 동
 네마다
 님의 피 흘리신 전령자 21세기
 의 사도 바울이여!
 그대 붉게 타오르는 7월의 동

넋 하늘에 떠오른 태양
 님의 실루엣이여
 그대 구름으로 뿌린 씨
 종려나무 백향목 알알이 자라
 꽃피고 열매 맺어
 님의 아름다운 푸른 조장이우리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

.....
 <지재일 기자>

복음의 전령자(방지일 목사 100세 기념 헌시 - 김길홍 목사(시인))

“고객과 나누며 삽시다”, 경품대잔치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웨스턴 11가 초이스 정육점(대표 최영봉)이 나누며 삽시다 경품대잔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 대표는 “고객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이익을 고객과 나누고 싶었다”며 “고객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여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행권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품 1위에는 라스베가스 2박 3일 여행권을, 2위는 세도나 2박 3일 여행권을 아주관관협찬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초이스 정육점에서 \$30이상 구입시 돼지갈비 1팩 무료증정한다. 문의) 323-733-4677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세요!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인생의 여정 속에 누구를 만나기 원하는가? 당신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줄 예수 그리스도와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남가주광염교회(담임 정우성

해 힘쓰고 있다.

<만남의 축제>
 날짜: 2010년 10월 29일(금)-31일(주일)까지
 시간: 금,토,일-저녁 7시 30분, 주일/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장소: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90010 (남가주 광염교회)
 문의: 213-598-0191

.....
 <박삼미 기자>

남가주광염교회 '좋은 만남의 축제'로 초대

목사는 10월 29일~31일까지 '가주광염교회 성도들은 릴레이 금식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50일 동안 150기를 릴레이 금식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초대하기 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대답이 여기에 있다.

좋은 만남의 축제
 강사 박원철, 정우성 목사
 주제: "복음의 능력"

.....
 <박삼미 기자>

“여드름 없는 깨끗한 얼굴을 원하십니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세 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 완치가 어려운 것이 여드름이다. 치료받을 때만 좋아지다가 재발하기 쉬워 완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경산한의과병원 류재규 원장은 다양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또한 여드름에서 얼굴은 내장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초기치료를 소홀히 하면 깊은 흉터와 함께 두껍고 어두운 피부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드름은 환자의 식습관 및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체질별로 치료법을 달리하면 여드름을 고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경산한의과병원 여드름 근본 치료, 재발 시 100% 환불

름이 재발할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어 신뢰를 더한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아드모어에 위치한 경산한의과병원(VIP플라자 2층)은 피부 표면의 여드름을 없애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여드름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세밀한 진맥과 진단을 통해 체질을 분석한 뒤 맞춤 치료를 함으로써 몸 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피부 안팎을 치료하는 비급여 요법으로 여드름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류재규 원장은 "한의학에서 얼굴은 내장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초기치료를 소홀히 하면 깊은 흉터와 함께 두껍고 어두운 피부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드름은 환자의 식습관 및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체질별로 치료법을 달리하면 여드름을 고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드름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닌 몸 내부의 오장육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마에 나는 여드름은 심장과 소장, 양 볼에 나는 것은 간과 폐, 코 주변은 소화기계통, 턱은 신장과 자궁의 기능저하 때문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설명한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여드름 치료에 신기원을 이루고 있는 경산한의과병원은, 피부 질환은 물론 모든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가득하다.

문의: 213)380-0853 (경산한의과병원)
 <박삼미 기자>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 지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UC Davis)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는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Qualification):

- ▶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고 캠퍼스와 이민 목회 사역에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수 있으신 분
- ▶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 ▶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지원서류 (Application Package)

- ① 이력서(사진포함)
- ②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 ③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 ④ 추천서 3부
- ⑤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제출처: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청빙위원회)
 603 L st. Davis, CA 95616
 Tel: (916) 717-0769 청빙위원
 e-mail: blessedare@gmail.com

제출기한 (Due date): 2010년 10월 30일

남가주 최고의 정규 4년제 종합대학

월드 크리스찬 대학교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BPPE 승인
 SEVIS 승인
 I-20 자체발행
 ABHE 가입

에능대학, 선교대학, 신학대학
 탐정대학, 경찰/경호대학, 언론정보대학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주정부,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방문, 상용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

ESL, TOEFL

통신학부 수시입학 편입생 환영

Phone: [323]734.0227, [323] 734.4599, [213] 725.300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가장 어두운 곳 중동에 가장 밝은 복음으로’

로잔대회 11신

제3차 로잔대회 각 날의 주제 중 두번째인 ‘화해(Reconciliation)’에 관해 진행된 19일 일정은 중동에서의 분쟁과 에이즈, 인신매매 등 무거운 문제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날 본회의와 저녁 모임은 폭력과 분쟁,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화해 사역이 집중적으로 다루졌다.

개인의 악과 사회의 악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부정한다. 그러나 총성과 화약 냄새가 사라질 줄 모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분열된 지

역 중동에서조차 복음의 생명력은 그 빛을 발하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길로 증거되고 있다. ‘화해’가 주제였던 이날 마지막 일정이 ‘중동의 저녁’이었던 이유다.

이란 엘람 미니스트리즈 창립자인 샘 예나자르 목사는 먼저 이

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란은 복음에 열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장 닫혀 있는 땅”이라고 그는 표현했다.

이란의 기독교 박해는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예나자르 목사는 그러나 이란 교인

를 위해 성은 밝히지 않음) 역시 중동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참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이해하게 된 팔레스타인인들은 다른 인종, 다른 종교의 이웃들에 대한 증오에서 해방되며, 평화와 정의를 꿈꾸게 된다는 것이다.

살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군인의 총에 희생됐다. 그러나 살림은 놀라운 간증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보다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가득 채웠고, 그는 또다른 이스라엘인을 전도해 함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메시아 안에서 동일한 정체성이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 무슬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손현정 기자)

‘화해’ 주제로 중동, 인신매매, 에이즈 다뤄

란에서 일고 있는 놀라운 복음전도의 결실을 증거했다. 제1차 로잔대회가 열렸던 1974년 당시에 이란에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5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30년간 그리스도로 돌아온 무슬림들의 수는 지난 1,300년간 개종한 무슬림들의 수

들이 “정부에 의해 배신 당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핍박 받으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동 국가인 팔레스타인에서 온 교인 살림(신변 보호

“미전도종족 선교, 편견이 가장 큰 장애물”

로잔대회 13신

전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20억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제3차 로잔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20일 ‘미싱 피플: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인구의 4분의 1(Missing People: The Unserved ‘One-Fourth World’) 세미나 강사로는 미전도종족 네트워크인 에스 투 에스(Ethne To Ethne) 선교 지도자들이 나섰다. 이들은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세계 선교에 열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만 6천여 가량의 미전도종족 중 3천7백여 종족이 복음

교회들이 미전도종족 선교에 주저를 느끼는 것은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편견도 작용한다. 베에네 선교사가 만난 미전도종족 출신의 청년은 개종한 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달라 보이고 무서워 보이니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 달라. 길로는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진리를 갈급하게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열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만 6천여 가량의 미전도종족 중 3천7백여 종족이 복음

에스 투 에스(Ethne To Ethne) 남아공 디렉터 피터

‘세계의 종교(World Faiths)’ 주제로 논의

을 접하지 못한 이유가 교회들이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로 파송되는 선교사들 중 3%만이 미전도종족에게로 파송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미국 언리치드피플즈(Unreached Peoples) 대표 켄트 박 선교사는 교회들이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에 선했 나 서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5년간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해 온 에티오피아 출신의 아리킬롬 베에네 선교사는 소말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 미전도종족 출신 청년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교회들이 갖고 있는 회의에 도전

탄탈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이 배우는 것과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거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프리카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독교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00년에 아프리카에는 8백만여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약 5억이 기독교인이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독교 인구가 90%를 넘는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또한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률과 빈곤, 부정부패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탄탈 선교사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가르치고, 또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로잔대회 12신

선교하러 가기 힘들다면? “옆집 문을 두드려라”

오늘날 점차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교회들에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열고 계신다.

제3차 로잔대회 4번째 날인 20일은 ‘세계의 종교’란 주제로 일정이 진행됐다. 로잔대회는 각 날에 따른 주제를 배경해 놓고 이 주제 안에서 고찰 가능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심화된 세미나를 제공하는 멀티플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선교학자인 TV 토마스 박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3%는 자신이 원래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아닌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토마스 박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봐야 하며,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에는 110만 명 가량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또

한 스리랑카에는 푼잡어를 쓰는 시크교인들이 1만4천 명 가량 살고 있다. 아랍권과 푼잡 지역은 원래 모두 복음전도자들이 직접 가서 선교를 펼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에 속한다.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아

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선교학자인 홍콩의 에릭 완 박사 역시 오늘날의 ‘국경 없는 교회(borderless church)’가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가능하

있기 때문이다.

완 박사는 “이제 더 이상 거리나, 비자 문제가 선교를 막을 수 없다”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마스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똑같은 것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이는 사람들이 복음에 더 개방적으로 되도록 만든다. 또한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다시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국가나 지역으로 돌아갈 때 이는 복음의 씨앗을 그 곳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 박사는 말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고 전략화시키야 한다”고 두 선교학자들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복음 전하기

르헨티나와 스리랑카 같은 보다 선교적 환경이 나온 곳으로 이미 나와 있다면? 접근은 보다 쉬워질 것이다.

토마스 박사는 “복음전파가 가장 시급한 곳의 영혼들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있다”며 “이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뜻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한번도 듣

게 한다고 밝혔다.

완 박사는 점차 국경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선교의 대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며, 복음전도자들은 더 이상 선교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는 선교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옆집 문을 두드려 보라”고 그는 말했다. 여러 국가와 지역들, 심지어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에서부터 온 이들은 이미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www.rosehills.com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가깝고 편리한 로즈힐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LA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한인장례에너의 친절한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세리토스점 [한국어문의]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브레아점 [Brea]
(562) 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 201-7097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창의와 협력으로 약진하는 교협되겠다”

뉴욕 교협 제37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열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그리스도’를 표어로 한 뉴욕 교협 제37회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뉴욕 교협 제37회기 회장 이사장 및 임실행위원 이취임식 및 시무예배가 10월 25일 오전 11시 뉴욕베스다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는 장식진 목사(중경 회장)가 ‘모세의 지도력을 본받으라(히11:23-29)’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모세의 참을성, 추진력

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장의 위치에서 환란과 이단의 풍랑 속에 있는 배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김원기 목사에게 당부했다. 2부 이취임식은 한재홍 목사(중경회장)의 기도로 시작했다.

하용화 회장(뉴욕한인회)은 “한인 동포들은 기독교 정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헤쳐 왔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

려움을 이기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기 바란다”며 “교협이 새로운 희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종덕 목사(뉴욕목사회 회장)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뽕뽕 뽕뽕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며 “교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하자”고 권면했다.

황규복 장로(신임 이사장)는 “이사회와 회원 간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교협이 맡은 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사회 안에서 자율적, 동질성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뉴욕 교협 신임 회장에 취임한 김원기 목사는 “교협이 37회기에 오기까지 중경 회장단의 노력과 연합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맡겨진 책무를 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 ▶조선족, 청소년 선교를 함께 해야 하는 시대, 교협의 개편과 교단들과의 협력, 대화 채널 개선을 위해 ▶교회 갱신과 본질 회복을 위한 지도자 컨퍼런스를 위해 ▶2011년 9월 11일에 열릴 할렐루야 대회가 교회 연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가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나고 한어권과 영어권이 하나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휴폐 이지를 통해 건전한 여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다.

그는 “창의와 협력으로 약진하는 교협이 되고자 한다”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주이 기자〉

KPCA 영어 노회 설립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영어목회자를 위한 노회 English Presbytery가 설립됐다. English Presbytery는 KPCA 내 늘어가는 1.5세, 2세, 그리고 영어권 목회자들을 위한 19번째 노회다. 여타 노회가 지역별로 쪼여져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을 초

했다. 이번에는 폴 장, 정 초, 제이슨 노, 마이클 리 등 6명의 EM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 준비해왔다.

해외한인장로회는 영어 노회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세대가 미국서 세운 기초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3년여에 걸쳐 탄생한 19번째 노회... 지역 초월해 영어권 회원이면 누구나

월해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영어권이면 노회 가입이 가능하다. 영어 노회는 10월 7일 오전 9시 나성영락교회에서 첫 노회를 개최했다. 15명의 노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마이클 리(Young Nak Celebration Church 담임) 목사가 노회장으로 당선됐다.

영어 노회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지난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10년 전에도 총회에서 인준 받은 바 있으나 설립되지는 못

갈 2세 목회자와 장로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비전에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영어 노회 설립을 준비해 온 폴 장 목사(뉴저지장로교회)는 “2세대들이 그동안 노회, 총회에 참석해왔지만 언어의 벽 때문에 1세 목회자들과 깊이 사귀기 힘들었다”며 “그동안 필요성을 느껴왔지만 이제 때가 되어 설립된 것 같다.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뉴욕중부교회, 8년간 기다려 건축 부지 허가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지난 8년간 기도하며 기다렸던 롱아일랜드 울드 웨스트베리에 위치한 성전 부지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김재열 목사는 “처음 8년 전에 제출했던 면적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정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라고 믿는다. 물론 남아 있는 문제가 있지만 허가를 받게 된 일은 정말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축할 성전 부지 면적은 6만 스퀘어피트로, 5개의 예배당과 체육관 겸 친교실, 39개의 교실, 수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농구장과 테니스 코트, 어린이 놀이터, 축구, 야구 경기가 가능한 잔디밭이 들어선다.

또한 다민족 선교를 위한 다민족 센터, 방문한 선교사의 쉼터 겸 선교 센터로서의 미션 홈(Mission Home)이 설립된다.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사회 복지 혜택을 위한 소셜 워커 서비스가 제공되며 장학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신축할 성전은 현재 중부교회의 리틀넥 예배당에서 7마일 동쪽에 있으며 495번 고속도로에서 39번 엑시트로 빠지면 만나는 대로변에 있어 진입이 용이하다.

〈오상아 기자〉

간증이 회복되는 삶을 살자

맥클린한인장로교회(담임 임철성 목사)가 사지마베라는 장애를 뛰어넘은 슈퍼맨 의사 이송복 형제와 바이올리니스트 배윤영 자매 등을 초청해 지난 10월 23일(토) 사랑나눔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이웃 초청의 자리

사했다”며 “내 삶과 연주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했다.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누비는 사지마베 장애인 의사, 장애를 극복한 슈퍼맨 의사 이송복 형제는

맥클린교회, 슈퍼맨 닥터리와 함께한 사랑나눔축제

로, 모든 순서들이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서울대,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피바디 음대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윤영 자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연습하면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바이올린이 얼마나 ‘우상’ 같은 존재였는지 깨닫고 나서, 한 음이라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

사했다”며 “내 삶과 연주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했다.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누비는 사지마베 장애인 의사, 장애를 극복한 슈퍼맨 의사 이송복 형제는

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됐으며, 그동안 나의 마음이 왜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했는지 알게 됐다. 내가 찾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진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임을 깨달았다”고 간증했다.

이 형제는 “앞으로 세계 어느 곳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했다”며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품고 각자의 길을 가셨으면 한다”고 축원했다.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

기 위해 체조선수가 되었고, 서울 올림픽 한국 대표의 꿈을 키우며 훈련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베 장애인인이 되었다. 체조선수의 꿈이 깨지고 오직 분노만이 남아있던 18살 시절, 그는 의사라는 또 다른 꿈을 안고 재할렐루이에 매달렸고 결국 대학 시험에 합격했다. 의대생이 된 후 불평한 몸으로 남들보다 두 배의 시간을 공부하며 허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존스홉킨스대학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되었다.

〈조요한 기자〉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교정시 지정 정비소 통환수리 (30%DC)



John Ko
☎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로스엔젤레스 교역자협의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2198779
미연방정부 면세번호(Federal Tax I.D. Number)
#95-4822611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

The Council Korean Churches in Los Angeles
회장 : 표세홍 목사, 중경회장 류당열 목사 ☎ (213) 718-1512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11월 8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성 + 웨스트)



노숙자선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

청소년 / 대학생
대상 노숙자체험
및 단기선교 오픈

“추수감사절 방학을 값있게 보내세요”

“보람된 선교봉사로 추수감사절 방학동안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커뮤니티 서비스 크레딧도 받아요!”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는 추수감사절 방학기간을 이용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숙자체험과 타인종 디아스포라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단기선교는 11월 24일(수) 오후 5시부터 28일(주일) 오후 4시까지이며, 참가비는 숙식포함 일인당 \$200이며, 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나 목회자/선교사 자녀들은 \$170이다.

매년 추수감사절 방학기간을 통해 미전역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숙자체험, 지역사회봉사, 정부기관방문, NGO(비영리단체)방문, 빈민구제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샵, 노숙자거리급식, 노방전도, 영어성경읽기 등

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유엔경제사회위원회 자문위원기구인 GCS International과 미의회 평화연구소 (USIP)에서 제공하는 유엔 및 국제관련 리더십훈련 학습도 받게 된다.

최상진 목사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중 하나인 추수감사절기간에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 탈선에 빠지기 쉽다”며, “건강한 국제적인 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탈선방지는 물론 의미 있는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나눔공동체의 단기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과반수는 2-3년째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평화나눔공동체 김응수 선교사는 “미국 최대의 명절

인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친지들도 없는 거리 노숙자들을 돌보며 방학을 지내는 것처럼 보람된 일도 드물다”고 말했다.

단기선교 프로그램은 20명 내외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가족이나 친지들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평화나눔공동체는 노숙자봉사 훈련을 통해 11월 20일(토) CTS TV와 함께하는 노숙자 및 극빈자 초청 추수감사절 파티 (1가 공원 및 맥퍼슨공원), 21일(주일) 노숙자들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예배 (평화나눔공동체 센터), 24일(수) 노숙자출신 안수집사 위로의 밤, 25일(목) 추수감사절 터기잔치 및 거리전도 (맥퍼슨공원), 26일(금) 노숙자출신 안수집사 초청 간증집회 행사를 갖는다.

(조요한 기자)

3주년 맞은 경서교회, 영적 비상의 첫해 꿈꾼다

스와니에 위치한 경서교회(담임 김학식 목사)의 창립 3주년 기념행사가 샬롯남부교회 원로목사 송영성 목사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24일 치러졌다. 이날 김학식 담임 목사는 이사가 60장(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

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민교회는 교회를 오는 동기 자체가 외로움을 달래고 사랑을 얻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 직분자로 세우고, 교회가 세상의 진목 모임처럼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목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에 관해 “하나님의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며, 보혈로 값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세상과 성별 해야 복

강사 송영성 목사 “이민사회 교회론 빈약” 지적하기도

에 임하였음이라(사 60:1))을 선포하며 예배의 시작을 알렸다.

3주년 창립기념 강사로 초청된 송영성 목사는 이날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일부 이민교회의 비뚤어진 교회론을 꼬집고 경서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른 교회로 성장할 것을 권면했다.

송 목사는 “교회는 세상과의 구별이 무너질 때 더 이상 교회

철새교회, 시계주성도 라는 모든 말이 교회론의 빈약에서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리를 위해 성전 밖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한 편리주의가 이익을 위해 제물을 파는 영리주의로 전락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드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쪼개진 제물인가 아니면 팔리우기 위해 나온 상품인

을 받는다. 경서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는 축복으로 설교를 맺었다.

한편 경서교회는 3주년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영적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한 해로 거듭나기 위해 총 8일 간 서모세 목사를 주강사로 한 부흥회를 열고, 교인 및 지역사회 한인들을 초청했다.

(권나라 기자)



경서교회 3주년 창립기념예배가 송영성 목사를 초청해 24일 열렸다

주님만 의지했던 4년, 5배 성장 축복 경험해

화평장로교회 창립 4주년 기념예배 드려

화평장로교회가 지난 10월 3일 4주년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조

기원 목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로 영광을 돌렸다. 특별히 성가대는 교회에



창립 4주년 기념 단체사진을 찍은 화평장로교회

대한 내용을 개사해 찬양을 불러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살전 1:2-4)”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조기원 목사는 “정말 부족하고 못난 목사인 데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쓰시기 위해 설교고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며 많이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화평장로교회는 지난 2006년 10월 창립, 던우디 미국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한인사회의 중심인 돌루스의 성전을 매입하기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창립 당시 멤버 70명을 시작으로 4년이 지난 현재 출석 인원 380명(아이들 포함)을 기

록하고 있는 주목 받는 개척교회다.

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솔로몬 왕 시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이제 와 보니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라는 감탄의 말을 전했던 것처럼 이런 증거가 교회에서도 터져 나와야 한다”고 전하면서 “교회는 교회의 맛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소문이 나는 교회며 교회의 맛이다”고 말했다.

(권나라 기자)

연 매출 1억 4천만 달러... 성공 비결은?



한기덕 대표.

애틀랜타 한인기독실업인회(회장 박일청, 이하 CBMC) 연례 행사인 ‘2010 불신자 전도초청 만찬’이 오는 11월 12일 오후 7시부터 도라빌 소재 스프링홀에서 열린다.

올해는 한기덕 볼티모어 트리플C 대표(북미주 CBMC 총연 부회장)가 주강사로 초청된다.

1981년 설립, 연 매출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도매업체인 트리플C를 운영하고 있는 한기덕 대표는 워싱턴DC, 버지니아,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에 약 100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16세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 대표는 80년대 초 워싱턴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캐리어아웃, 그로서리, 리퀴 스토어 등 소매업에 종사하는 점에 착안 이들에게 물건을 대는 도매업에 뛰어들게 됐다. 박일청 회장은 “한 대표는 사업에서 성공뿐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도 모범을 보이는 크리스천”이라 말했다.

(박현희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을 (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칼릴리선교회
담임: 한현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월-토)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자녀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주일학교,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월-토) 오전 5:30
주요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터은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 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EM예배 오전 9: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진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앙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순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 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음)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방)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새크라멘토 교협, 신임 회장 박수현 목사 선출



박수현 목사(산돌교회)

2세 사역 남다른 비전과 꿈... 사역자간 네트워킹 노력

새크라멘토 교회협의회는 지난 19일 새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박수현

목사(산돌교회)를 선출했다. 이어 회기 총무에 박준배(은혜 선교교회)목사를 서기에 김철웅(부흥교회)목사와 회계에는 한경호(새롬교회)목사를 결정했다.

박수현 목사(새크라멘토 산돌교회)는 지난 1994년부터 영어부 목회자를 총 3개 교회에서 담당해 오다 2005년 새크라멘토에서 산돌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하고 있으며, 한인 2세 사역에 남다른 비전과 꿈을 가지고 2세 사역자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새크라멘토 교회협의회를 총무 등 수년간 교협 임원을 맡으면서 교회 연합 활동에도 많은 공헌을 해왔다.

(임형진 기자)

영어권도 중요하지만, 청년부도 함께 살려야죠

일반 중소형 교회의 경우 우선 순위가 한어권 장년부 예배, 영어권 예배에 밀려 한어권 청년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대상이 되기 쉽다. 청년부는 일정한 수입도 없고 직장이거나 여러가지 사정

청년부 교회 따로 운영.. 운영, 재정 모두 독립적 실행

으로 한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아 운영상 애로 사항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청년부를 키워 온 교회가 있다.

권혁인 목사(버클리연합감리교회)는 부임한지 5년 동안 교회 내 불모지와 같던 한어권 청년부를 충실히 키워왔다. 아무런 지원



권혁인 목사(버클리연합감리교회)

도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 현재 장년부보다 더 많은 100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 중 90%가 버

클리대학교 학생들이다.

권혁인 목사는 청년부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철저히 청년부 스스로 운영하도록 독립시켰다. 청년들이 스스로 필요한 후원을 얻고 재정이나 예배, 행사 전반적인 운영도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게 했다. 청년부 예배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청년부는 교회 건물을 장년부와 함께 쓰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와도 같았다. 누구의 도움 없이 운영돼야해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다. 덕분에, 청년들에게 맞는 자율성이 존중되고 자립적인 예배로 발전했다.

매주 금요일,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위해 2명의 헌신적인 청년들이 쉬지 않고 손수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었다. 권혁인 목사는 “몇몇의 청년

들의 큰 헌신이 없었다면, 이 많은 청년들을 매주 먹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버클리연합감리교회 1부 예배는 장년부 예배, 2부 예배는 영어권 예배, 오후 1시에 열리는 3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드러지고 있다.

권혁인 목사는 “장년부, 영어권 예배 모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교회들이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에 있는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한국 교회가 어찌하면 더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영어권보다는 한어권 청년들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부는 앞으로 매달 BOW Night(Beauty Of Worship)를 열어 청년대상으로 찬양예배를 계획 중이다. 드라마 팀도 따로 있어서 찬양예배와 함께 공연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형진 기자)

김용의 선교사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지난 22일 부터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의 선교사를 초청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롬1:16)'란 주제로 말씀 축제를 개최했다.

김 선교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복음이 우리 삶에 실제이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반문하며, “다른 것을 모두 잃어도 하나님과 십자가를 지킬 수 있는지 돌아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정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역설했다.

“영원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나 보다 더 잘 아



김용의 선교사는 “선교와 부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삶속에 기쁨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라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 물질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십시오.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님의 굳건한 터 위에 두십시오”

김 선교사는 많은 사람이 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을 지적하며, “하나님은 어떤 종교의 우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사랑과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와 영생, 거룩, 죄를 이기는 힘과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며 “신앙 생활을 영적인 만족과 종교적 위안으로 다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

리의 번제와 재물, 어떤 의식과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보다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사랑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으로 부터 오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거나 변질 된 것이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 하지 않고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김 선교사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가슴 속에 일어나야 한다”며 “그 다음 선교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며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셋별한국문화원장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2세들에게 전수해 온 최지연 사모(시애틀 베다니교회)가 꼽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지난 24일 베다니교회(담임 최창호 목사)에서 열린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들의 교육' 세미나에서 최지연 사모는 “자녀에게 남길 유산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돈이나 학벌, 명예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요즘 겪는 미국의 위기는 불경기나 거품경제로 시작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세미나의 문을 연 최 사모는 “경제적 위기는 예전부터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요즘 겪는 미국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청교도 정신을 잃

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지연 사모는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전수에 실패한 미국은 전반적인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디지털 문화의 어두운 측면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과 동성애, 포르노에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사모는 “21세기 발달된 기술문명과 물질주의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교 직장인들, 영혼구원에 앞장서야”

23일 꽃동산교회(김종준 목사)에서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이하 한직선연)가 주최하는 '2010 직장선교 한국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우리는 일터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천 5백여 명의 기독교 직장인과 가족, 직장선교회 지도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종준 목사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세상 어떤 일보다도 기뻐하신다”며 무엇보다 전도의 사명을 충실한 직장선교사가 될 것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

◆ 2010 직장선교 한국대회 개최



이번 대회에 참석한 전국 1천5백여명의 직장선교사들이 직장복음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면 연륜, 경험, 지식 등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광선 목사(한국기독교총연

합회 대표회장)는 “매일 몸담아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모범을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직장 선교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정숙자 권사(우정사업정보센터)는 간증에서 “기독교 직

장인들이 훈련 받고 깨어있지 못하면 직장에서 적당히 눈치 보다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만다”며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 직장 업무와 동시에 직장 선교의 명령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옥진 간사(직장선교대학)는 한직선연 산하 훈련기관인 직장선교대학을 소개했으며 서영준 장로(울산직장선교연합회 사무총장)는 오는 11월 7일 ‘2010 직장선교 울산대회’를 개최하는 등 울산직장선교연합회의 성공적 사역 활동을 보고하여 타 지역, 직능연합회의 귀감이 되었다.

오후 특강 시간에는 심신의학자 김종성 목사(길교회, 가톨릭의대 통합의학교실 외래교수)가 마음과 영성, 몸을 함께 돌보는 전인치유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현대인의 질병인 암을 비롯하여 많은 병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직장선교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선교예수제에는 인천, 대전, 청주 지역연합회와 보험기관선교연합회, 서울메트로직장선교연합회, 한국전력그룹선교연합회, 호남석유화학직장선교연합회, 등 8개 합참단이 출연해 영광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청주직장선교연합회 에바다 찬양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 노량진교회 하늘소리 남성중창단, 이지현(소프라노), 천관웅 목사(뉴사운드교회) 등이 특별출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직장선교 관련단체 연합성회, 장학재단 설립, 리더십훈련 강화 및 지역 직장선교대학 신설, 30년사 출판 등 한직선연 직장선교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듣고 전국 41개 지역연합회, 46개 직능연합회의 연합과 사역 활성화를 위해 합심기도를 했다.

(이지희 기자)

한기총 이대위가 본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해 무려 4차례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이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은 22일 오전 제21-8차 임원회를 개최했다. 여러 현안을 다룬 이날 임원회에서는, 장재형 목사(WEA 북미이사)와 김광신 목사에 대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고창곤 목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중 장재형 목사는 한기총의 회원교단인 예장 합동복음의 증경총회장이며 WEA(세계복음연맹)의 북미 이사로서, 이용규·엄신형 대표회장 시절 한기총이 WEA에 가입하고 최근 2014년 WEA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다. 한기총 이대위에서도 통일교 관련설이나 재림주 의혹설에 대해 2004년(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대위원장 오성환 목사), 2005년(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이대위원장 한명국 목사), 2009년(대표

회장 엄신형 목사, 이대위원장 고창곤 목사) 조사한 바 있으나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 특히 1, 2차 조사의 경우 ‘통일교 관련설’에 대한 것이었으나 통일교 문제 뿐 아니라 신앙과 신학 전반에 대해 다룬 뒤 통일교와 관련이 없음을 결의했고, 3차의 경우 최삼경 목사 등 그간 장 목사를 음해해온 핵심

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연구결론을 보고하여 이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22일 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근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명예회장 길자연 목사가 이대위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이광선 대표회장 등은 이미 이

그러나 한기총의 기본 입장이 무엇이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또 길자연 목사는 “사전에 이대위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최삼경 목사와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최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결정은 이대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이대위 관계자는 “현재 차기 대표회장에 도전하고 있는 길자연 목사가 장 목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굳이 다음 회기로 미룬 것은, ACTS,

했다. 장 목사가 속한 합동복음 교단 관계자는 “계속 동일한 세력에 의해 거짓 소문이 생산·확산되어 무의미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의 조작대로 이단 규정이 내려져야만 조사가 끝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교계 지도자라는 인물이 이러한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서 정략적으로 발언하고 사실을 왜곡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단 인사의 문제는 소속 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한기총 이대위 결의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장재형 목사에 대한 통합과 합신의 결의를 들어 회원 교단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통합의 결의는 특정인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보도(교회연합신문)됐고 감사위에서도 절차상 불법성이 지적됐으며, 합신의 결의는 이단 결의가 아닌 주의를 요한다는 것으로 합신측의 고소가 한기총 이대위로 올라가서 조사와 재조사를 거쳐서 무혐의 이단성 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다.

(류재광 기자)

장재형 목사, 4차 재조사서도 무혐의 “이단성 없다”

▶ 한기총 이대위 “의혹에 불과할 뿐 증거가 없고 사실 아니다”

인물들이 5시간여에 걸쳐 대질을 펼치는 등 모든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끝에 역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박형택 목사 등 소위 이단감별사들은 더 조사할 것을 요구해 조사가 추가 진행됐고, 이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 이대위는 “재림주 의혹설은 연구 결과 의혹에 불과할 뿐 증거가 없고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장재형 목사는 ‘이단

대위 보고서가 작성됐으므로 자신의 현 임기 중에 다룰 것을 제안했으나, 길자연 목사 등은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 임원회에서 다루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투표 끝에 조사를 다음 회기 첫 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연기시켰다. 길자연 목사는 본지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인은 장재형 목사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기총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옹호한 것”이라고 했다.

경 목사가 본인이 (대표회장)할 때 이대위원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식으로 캐지 말라”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단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이대위 관계자는 “이대위가 수차례에 걸친 공식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에 대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임원회 일부 인사들이 투표로 다음 회기에

찬송가공회, WCC 등 교계 주요 현안에서 사사건건 자신과 대립하고 있는 현 대표회장이 차기 선거 라이벌인 이광선 목사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했다.

장재형 목사측은 “신앙 검증에 대해서는 언제나 응하겠다”면서도 “그러나 7년에 걸쳐 4차례나 조사했음에도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밝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기독교사회복지은행’, 제1금융권으로 설립 계획

11월 1일 5천명 규모 발기인대회... 3대 종단 연대도 고려

자본금 1조 5천억 규모의 ‘기독교사회복지은행’이 제1금융권으로 설립을 계획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립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 예정이다. 설립을 준비 중인 강보영 목사는 25일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은행 설립을 계획 중”이라며 “1조 5천억원 규모의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목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은행 설립을 마칠 방침이고, 시중 은행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던 교회들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한국교회기 제1·2금융권에서 빌리는 돈을 1년에 1조

한국교회 1·2금융권 연간 대출액 1조원, 이자만 수백억 달해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대출자가 연 2-3%인데 비해 교회는 7.6%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한 달 이자

만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 전문대출을 하는 한 시중 은행은 1년에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 받은 교회들은 한국교회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담보 여건 등이 부족해 대출 대상에서 제외,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목사는 “대출자의 경우 기업대출 이하로 책정해 교회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며 수익금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고, 미자립교회 건축자금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소금융 형태로 저소득 계층에게 자활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원로목회자들을 위한 생활보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연합회의 허가 문제에 대해 강 목사는 “좋은 차원이므로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기독교만 한다고 하면 명분이 약하므로 한국의 3대 종교인 천주교, 불교까지 함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류재광 기자〉



“다큐 일변도의 기독교영화, ‘스토리 텔링’ 절실”

서울기독교영화제에서 특별포럼 열고 발전 방안 모색

최근 들어 한국 기독교영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소명’을 개봉으로 올해 초 ‘회복’, ‘소명2-모겐족의 월드컵’이 개봉했고, ‘잊혀진 가방’, ‘희망의 별-이케지레테바’ 등이 잇따라 개봉했다. ‘파이어프루프’나 ‘믿음의 승부’ 등 해외 기독교영화들도 극장을 통해 개봉하며 소개되고 있다. 부쩍 늘어난 기독교영화 붐이 한 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서울기독교영화제와 문화선교연구원은 25일 서울극장에서 ‘한국 기독교영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특별포럼을 열고 기독교영화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낮은데로 임하소서’ 등을 연출한 이장호 감독과 서울기독교영화제 조현기 프로그래머, 영화평론가 최성수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7-80년대 총무로와 기독교영화’를 주제로 발표한 이장호 감독은 기독교영화의 발전을 위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감독들이 영화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과거 7-80년대 총무로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면, 선교라는 목적을 이루기에 급급해 일반인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엔 서툴렀던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멜로 영화라도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감독이 만든다

면 기독교적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특히 기독교인들의 이분법적 시각에 대해 지적했다.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영화를 보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왕이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려는 심리 때문에 기독교영화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대중적 입지를 확보한 기독교영화가 지독한 인본주의 속에서 어떻게 접근할지가 과제”라고 했다.

한국 기독교영화 제작 현실에 대해 소개한 조현기 프로그래머는 “현재까지는 개봉한 영화들은 다큐멘터리 위주의 기독교영화가 대부분이다. 이는 영화산업의 특성상 이윤을 창출하여야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명’이 극장진출을 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데이터조차도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투자자 측면에선 적은 돈을 들고 극장에 진출하는 ‘low risk’를 선호하게 되고 ‘소명’이나 ‘회복’은 투자 대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영화산업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한국 기독교영화 산업계의 중요한 화두는 스토리 텔링을 통한 꾸준한 콘텐츠의 개발, 특히 그중에서도 ‘극영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3-4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언제 이러한 기회를 만회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교회도 무슬림처럼 고출산 운동 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교육자원부가 25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011 교육목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통상 ‘다음세대’로 지칭되는 청소년 및 청년 숫자의 교회 내 지속적 감소 현상과 이에 대한 교회의 대처방안 및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교회의 역할 등이 모색됐다.

특히 이날 주제특강한 총회교육자원부 김치성 목사는,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교회의 책무를 ▲고출산 운동 전개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고양 ▲신앙의 대잇기-신앙전통 계승 등으로 제시했다.

먼저 고출산 운동의 전개에 대해 김 목사는 “다음세대 등장과

더불어 한국 사회 전체에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출산율의 저하”라며 “이것을 보면 왜 지금 교회학교에 어린이가 줄

예장 통합, 교육목회 세미나 열어

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절로 나온다. 최고의 전도정책, 부흥정책은 단연 출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이미 무슬림 국가가 일부다처제를 통해 계속적으로 그 숫자를 불려나가는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며 “이제 우리(교회)도 고출산 정책을 수용할 시점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순종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고양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은 모습으로 투영되지 않고 있다”며 “기독교 안티 운동도 전개되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교회가 대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교회는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 속에서 신뢰도를 회복해 사회를 싱그럽게 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은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다음세대의 신앙문제는 신앙의 대 잇기 문제”라며 “부모들은 책임있게 그들의 신앙을 다음세대의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부모세대의 신앙전통 계승이 다음세대 부흥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지금 세대들은 재미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이렇게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며 이를 위주로 살다보니 신앙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이라며 “육체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앙의 대잇기 운동을 통해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김 목사는 다음세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선 ‘경험’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교회가 다음세대에게 복음과 선교, 비전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한미전도대회, 677명 결신시키며 마무리

서울 독산동 갈보리교회(담임 원재춘 목사) 주최 제7회 한미전도대회가 전도 대상자 850명 중 777명을 만나 이중 677명을 영접시키며 지난 17일부터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 파크웨이 침례교회에서 방한한 베니 헤기(Benny Hagie) 목사 등 12명의 전도자들은 마치 ‘5분대기조’처럼

성도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함께 불신자들을 만나러 나가거나 교회에 데려온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9일 말씀을 전한 헤기 목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닦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탄이 틈만 있으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와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기 목사는 모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며 “우

리의 미래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음을 잊지 말고 힘차게 사역하자”고 역설했다.

헤기 목사는 일곱 번째를 맞는 전도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곱 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고, 그간 우리는 고국에서 기도모임을 가지며 이를 준비해 왔다”며 “특히 이번 해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7년간 꾸준히 뿌린 씨앗들을 열매맺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뻐했다”고 밝혔다.

함께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

길더(Andrea Gilder) 성도는 “전도하러 왔지만 오히려 한국 성도들의 전도 열정을 배우고 가는 것 같다”며 “하루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첫번째 방문인 길더 씨는 “팔 돌, 아들 돌인 저희 가정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여는 것 같다”며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 성도들의 열정을 본받아 복음 전파에 힘쓰고 싶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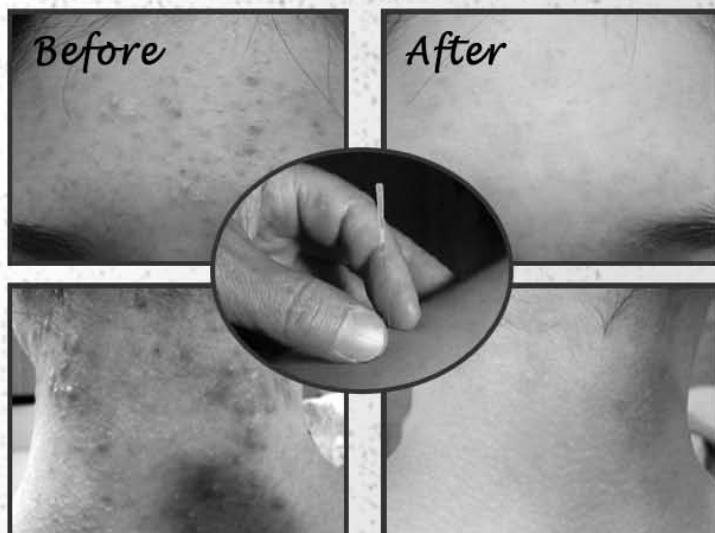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213-380-0853

김인수 칼럼



김인수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개혁”이다. 영어의 Reformation(개혁)이라는 말을 누가, 언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 번역한 것이다. 종교하면 모든 종교를 통칭하는 말이다. 즉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등 무수한 종교를 포함하는 말이다.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독일에서 일으킨 개혁운동은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개혁이다. 루터 당시 구약에는 오직 로마 가톨릭밖에 없었다. 따라서 루터는 부패한 로마 교회를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는 교회개혁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금년은 루터가 교회 개혁을 일으킨 지 493주년이 되는 해

이다. 이제 7년만 있으면 500주년이 된다. 루터가 부패한 교회에 개혁의 가치를 높이 든 것이 500년이 되어 가는데, 오늘 교회는 얼마나 개혁되었을까? 교회는 정말 루터가 원했던 그런 교회로 거듭났을까?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까?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가 성서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던 독일 비텐베르크대학 성당 풍족 문에 95개 조항의 면죄부에 대한 항의문을 게시한 것이 교회 개혁의 불씨가 된 일인 것이다. 루터가 고발했던 면죄부는 무엇이며, 왜 이 문제가 루터 공격의 초점이 되었을까?

면죄부(免罪符: Indulgence)는 문자 그대로 죄를 면해 주는 증표이다. 개신교에는 세례, 성찬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반해, 가톨릭에는 7가지 성례(영세, 견진, 성찬, 고백, 종부, 혼배, 서품)가 있다. 그 일곱 가지 성례 중 고백 혹은 고해 성사가 있는데, 고백은 신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성사이다.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1년에 적어도 두 번(부활절 전, 성탄절 전)의 고백 성사를 해야 되고, 또 수시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고백을 해야 한다. 이 때, 신부

의 무게 하는 것이다. 면죄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1세기 십자군 운동 때이다. 이후 622년 시작된 이슬람 세력은 파죽지세로 중동 여러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면서 급기야 638년 성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성도 각지에 있던 성당의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고, 이슬람의 초승달 모양의 표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기독교도들의 분노는 높아갔다.

이 때 교황 우르반 2세가 성지 탈환을 주장하면서, “하느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Deus Vult)며 성도 탈환을 위한 십자군을 호소한다. 십자군에 나간 사람에게는 ‘대사면’(Plenary Indulgence)을 선언했다. 일생동안 짓는 모든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게 시작된 면죄부 제도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로마 바티칸에 짓고 있던 베드로 대성당(내부 면적만 3만평)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황

은 아직 시대가 성숙되지 못하여 루터와 같은 주장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위클리프는 사후 묘지가 파헤쳐져 그 유골이 불태워졌고, 후스는 화형으로 분살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루터가 게시한 95개 조항의 항의문 첫 조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을 때(마 4:17),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 되어야 함을 의미하셨다. 신약의 회개란 심정의 변화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면 왜 이에 대한 벌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 즉 회개

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정당화 되지 않고, 오직 철저한 참회, 즉 과거 자기의 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죄가 돈으로 해결된다면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의 용서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루터는 이에 대한 철저한 거부로 개혁을 시작하였다. 루터 개혁의 3대 원리 중 첫 번째가 ‘오직 믿음’(only faith)이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이지, 면죄부를 삼으로 죄가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가 ‘오직 성경’(only scripture)이다. 성경만이 절대 유일의 법칙이요, 교황령이나 교회는 결코 절대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only grace),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루터가 교회 개혁을 외칠 때, 중세 교회는 돈과 성적 타락이라는 두 가지 마귀의 뿔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루터가 개혁의 불꽃을 올린 지 4세기가 지난 오늘 교회는 이 두 뿔에서 자유로운가? 물량주의와 향락주의에서 진정한 자유를 구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개혁은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교회(종교)개혁과 면죄부

하면서 사생아를 낳아 기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록에 의하면 네델란드 지역 성직자 1/4이, 남부 라인 지방의 1/3이 정부를 두고 살았다. 이렇게 신부들이 사생아들을 낳고 살림하게 되므로 생활비가 들게 되고 또 무도회와 사냥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다. 개척을 일으켰던 루터의 고국 독일의 1년 총생산의 40%가 이탈리아로 흘러들어 갔다. 불쌍한 농부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면죄부를 사는 데로 빨려 들어갔으니, 민족주의 의식이 강했던 루터나 당

은 아직 시대가 성숙되지 못하여 루터와 같은 주장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위클리프는 사후 묘지가 파헤쳐져 그 유골이 불태워졌고, 후스는 화형으로 분살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루터가 게시한 95개 조항의 항의문 첫 조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을 때(마 4:17),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 되어야 함을 의미하셨다. 신약의 회개란 심정의 변화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면 왜 이에 대한 벌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 즉 회개

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정당화 되지 않고, 오직 철저한 참회, 즉 과거 자기의 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얼바인누리교회 담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들의 가족과 가족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

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이미 모세 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을 보면 요단 동편에

다. 그리고 모든 땅 분배가 마쳤을 때,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때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

전리품을 나누어라

정착하려고 했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모세는 강력한 훈계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전방에서 싸울 것과, 요단 강 서편 땅에는 이들을 위한 분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모세와의 약속 그대로 4만 명의 군사들이 7년여의 정복전쟁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웠습니

다. 그리고 모든 땅 분배가 마쳤을 때,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때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

람이나 후방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과 나머지 회중에게 절반씩 나눠 주어라.”(민 31:27, 우리말성경) 아마 이 원칙의 배경에는 전리품의 획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에서의 결과임을 기억하라는 것과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동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에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분명하게 전리품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삼상 30:22-

24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약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 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 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들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우리말성경)

다윗은 인색함이나 매정함에 반대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도모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부쳤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당연히 전리품도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는 은혜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돌봄과 선행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전리품을 나눔은 누구신지요? 한 주간 사랑의 나눔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 칼라 전문점

마이스티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티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칼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워터-미류리온드 샹기 2층
일서+웨스턴 코너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이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 블랙앵거스 프라이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판매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을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을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붓기 없는 임플란트	* 턱의 변형을 보철 전문의	* 턱의 변형을 임플란트 전문의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드림 없이 받는 임플란트	연세 치과대학 졸업	보스턴 임플란트 보스톤 치과대학 졸업
합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른기법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데 • 보철치과 • 신경치과 • 구강외과 • 보철환원: PPO, HMOA
치주치과 • TMI (턱관절염, 소골절)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6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 있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증권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통,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카레라이스 \$1.00 (1인당)
짜장소스 \$1.00 (1인당)
유채콩나물국 \$1.00 (1인당)
김차미역국 \$1.00 (1인당)
아예비빔밥 \$1.20 (1인당)
고기비빔밥 \$1.80 (1인당)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농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고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마켓팅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리버리를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 사이)

블라인드 캔텐 전문 업체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스탠포드 대학교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8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 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327-9929 213-909-5518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Higher Calling

더높은 부르심!

제 3차

미주 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를 향한 피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미주 한인청년학생들을 부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 가노라 (빌 3:14)

대회일정 | 2010년 12월 20일(월) ~ 23일(목)

대회장소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4000명

등록 | 당일등록없음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1 차 | 11월 22일까지 \$150 (USD)

2 차 | 12월 6일까지 \$170 (USD)

마감 | 12월 13일까지 \$220 (USD)

등록방법 | www.gkym.org 에서 직접 신청 | Pay to order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문의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사무실(KCCC USA)

1636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 389. 5222 Fax : 213. 389. 5200

www.gkym.org E-mail : gkym2010@gmail.com



프로그램 | 전체 집회, 선택특강, 어울림축제, 선교박람회, Sports 축제, 결혼세미나, CCM, CCD 경연대회, 콘서트.....

강사 | Steve Douglass (국제CCC총재)
Miles McPherson (The Rock Church)
Duffy Robbins (Youth Specialties)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김동환 목사 (KCCC USA 대표)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최홍주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김상돈 목사 (파테말라 한인교회)
김희수 목사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이성현 목사 (드림 교회)
이성우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장)

Luis Bush (기독교21세기운동)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
임현수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한철호 목사 (선교한국 상임대표)
박희민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대표회장)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송정명 목사 (미주평안교회)
김혜택 목사 (뉴욕총신교회)
한기형 감독 (나성동산교회)

뮤지션 | Shane and Shane

간증 | 최경주 (프로골퍼)



주관 | GKYM 준비위원회 | KCCC 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Holy City Movement

주최 | GAP (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 남가주 목사회 | 샌디에고 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풀러선교 신학대학원 | KAYAC | HYM | CTS | CGN | KIMNET | JAMA | KCMUSA
미주복음방송 | 한국일보 | 중앙일보 | 크리스천에럴드 | 크리스천신문 | 크리스찬 투데이 | 크리스찬 뉴스위크 | 기독일보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미국에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 딜러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10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 **성능, 디자인**으로 중형차를 석권하다. 최저 가격 보장

2011 신형 제네시스



• 대형 **세단**의 중후함과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최저 payment 보장

2011년 신형 제네시스 coupe



• 한 번만 타보세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차. 만족도 보장

2011 최신형 투싼



• 보시는 순간 매료됨 갖고 싶은 귀여운 **SUV**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함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함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0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2,888
- 2007 BMW (BLACK) 328Xi STK PP31167 \$26,888
-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TK P051414 \$18,488
- 2009 TOYOTA (WHITE) TACOMA STK P640770 \$16,999

- 매니저가 권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ITE STK P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TK P33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TK P44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 P59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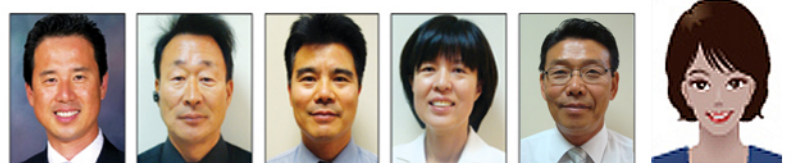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킴 지니 안 존 킴 한국어 상담 제니 킴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the next best price on your Hyundai.